

학년에 따른 학령기 다문화가정아동과 일반가정아동의 생성이름대기 특성 비교*

김 화 수**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김 지 채***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권 수 진

아이라라아동발달연구센터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생성이름대기를 사용하여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을 조사하고, 일반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비교한 뒤, 학년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총 29명(여자: 22명, 남자: 7명)으로 하였다. 비교집단의 일반가정 아동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으로 총 33명(여자: 27명, 남자: 6명)으로 하였다. 동물과 가계물건 의미범주 생성이름대기와 /ㄱ/와 /ㄴ/ 음소범주 생성이름대기를 실시하여, 산출수와 군집수, 전환수를 측정하였다. 결과는 생성이름대기 산출수, 군집수, 전환수에서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년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주제어 : 학령기 언어장애, 학습장애, 다문화가정 아동, 생성이름대기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 제1저자(whasoolang@hanmail.net)

*** 교신저자(veronika0626@daum.net)

I. 서 론

1.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우리와 다른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말’인 다문화가정(多文化家庭, multicultural families)(건강가정시민연대, 2004)에 대한 정의를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이 무의미할 만큼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는 이미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의 2009년 자료에 의하면 결혼이민자는 167,090명으로 2008년의 144,384명보다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양육이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이들의 자녀인 다문화가정 아동은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2008년과 2009년, 1년 사이에 그 증가세가 약 2배에 달하며,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되어 2020년께 14만 2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설동훈, 2008).

다문화가정의 결혼과 이혼, 출산이 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다. 대다수 다문화가족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그 중 언어소통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능력 부족으로 언어·인지발달의 지체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보건복지가족부, 2008), 실제로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지능 및 학업수행능력은 일반아동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8).

<표 1> 2008, 2009년도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

	2008년		2009년	
	학생수(명)	비율(%)	학생수(명)	비율(%)
6세 미만	33,140	57.1	61,700	59.6
7세 ~ 12세	18,691	32.2	27,568	26.7
13세 ~ 15세	3,672	6.3	7,785	7.5
16세 ~ 18세	2,504	4.3	6,431	6.2
계	58,007	100	103,484	100

다문화가정 아동 수의 증가와 그로 인한 언어문제, 학업문제, 나아가서는 사회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문제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다. 그럼에도 근자에 발표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 및 특성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두 가지 종류의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이 일반아동의 언어발달과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지체가 일반아동의 언어발달 속도를 따라잡느냐에 대한 것이다.

학령전기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특징에 대해 연구하거나 일반아동의 언어발달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의 차이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학령전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일부가 이해 언어와 표현 언어에서 언어발달 지체를 보이며(오소정 외, 2009; 황상심, 정옥란, 2008), 언어이해의 측면과 언어표현의 측면 모두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의 능력보다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김경미, 2008; 이수정 외, 2008). 이러한 언어발달의 지체는 언어영역 뿐만 아니라 조음·음운 발달 영역에서도 지체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신영주, 안성우, 2008).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이 일반아동의 언어발달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특징의 또 다른 이슈인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속도에 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그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느리다가 나중에는 또래수준을 따라잡는다는 의견(황혜신, 황혜정, 2000; Gathercole, 2002)과 연령이 증가해도 한국아동 기준과 비교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검사상의 상대적인 수행은 향상되지 않는다는 주장(오소정 외, 2009)이 그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점은 대상자의 대부분이 학령 전기 아동이라는 점과 표준화된 검사를 사용하여 아동의 발달정도를 평가하였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학령기에서 요구되는 언어기술은 학령전기에 사용되는 언어기술과는 질과 양에서 차원을 달리한다. 학령기의 아동은 단지 말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언어 자체를 이해하고, 언어의 개념을 형성하여야 한다. 즉 상위언어(metalinguistics)를 습득해야 교과진도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언어기술만을 습득하고 사용했던 아동이 학령기에 들어서 학습장애로 발전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며, 학령기의 언어능력은 학습뿐만 아니라 고차원적 언어의 습득과 사용에 중요한 변인이 된다(Kuder, 2008).

학습장애와 언어발달지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학습장애를 겪고있는 아동들의 대부분이 학령전기에 언어발달지체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었다(Catts & Kamhi, 2005). Leonard(1998)는 단순언어장애로 진단된 아동이 수년 안에 정상 언어발달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반대로 이러한 단순언어장애 아동들이 학령기 이후에 읽기장애나 학습장애를 보이는 경우는 높다고 주장하였다. 4-8

세의 언어발달지체 아동에 대한 중단 연구 결과 4세에 언어발달지체를 나타낸 아동들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언어발달지체를 나타내며 학습장애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Tallal, 1988). 학령전기에 단순언어장애로 진단된 많은 아동들이 언어결함이 지속됨과 동시에 학습문제를 일으킨다는 언어발달지체와 학습장애의 관련성에 대해 경고한 논문이 많다는 사실에 대해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경우를 비추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대부분이 학령전기 아동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7세에서 18세 사이의 학령기 아동의 비율 역시 대단히 높은 수치(2008년 42.8%, 2009년 40.4%)라는 사실과 앞으로 수년 이내에 6세 미만의 아동들 역시 학령기에 접어든다는 사실은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러한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특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안원석(2007)의 연구가 있지만 이는 작문을 통한 음운, 형태, 통사, 어휘론적 측면을 살펴보았으나 언어발달을 평가함에 있어 민감하고 즉각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언어발달을 평가할 때 표준화된 검사 도구는 대상 아동이 정상 아동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는 가장 좋은 검사 도구이며, 아동의 언어능력과 손상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도구이다. 그러나 표준화 검사만 가지고 아동의 언어능력과 손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Paul,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문제 역시 공식적인 검사에서 나온 점수로만 평가하기는 힘들다(Bedore & Peña, 2008). 우리나라에서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검사는 ‘언어문제 해결력 검사’ 등이 있는데, 학령전기 아동을 주 대상으로 만들어진 검사이므로 학령기 아동들의 언어능력을 측정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를 평가함에 있어 그 목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장애를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장차 학업과 직업,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언어가 걸림돌이 될 소지, 즉 언어 기술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를 역동적 평가와 더불어, 자발화 수집, 포트폴리오 평가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김화수, 2009).

이에 본 연구자는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의 차이를 민감하게 반영하며 아동의 수용언어와 표현 언어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생성이름대기(generative naming)를 사용하여 학령기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을 조사하고 일반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비교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아동의 생성이름대기 산출수, 군집수, 전환수가 일반가정아동과 차이가 있는가?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생성이름대기 산출수, 군집수, 전환수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생성 이름대기

1) 생성이름대기를 통한 언어발달 평가

생성이름대기 검사(generative naming test)란 제한시간동안 주어진 범주 내의 낱말을 산출하는 검사로 통제단어연상검사(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 COWAT)라고도 하고 혹은 어휘 풍부성 검사(verbal fluency test)라고도 한다. 이 검사는 신경언어장애군의 언어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들(Boston diagnostic Aphasia Examination, Western Aphasia Battery)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며, 낱말 인출 능력을 측정하는 효과적인 검사로 알려져 있다(Tombaugh, Kozak & Rees, 1999).

생성이름대기 검사는 크게 특정 의미범주에 속하는 낱말을 산출하는 의미범주 어휘 유창성 검사(semantic fluency test) 혹은 의미범주 생성이름대기 검사와 특정 음소로 시작하는 낱말을 산출하는 음소범주 어휘 유창성 검사(phonemic fluency test) 혹은 음소범주 생성 이름대기 검사로 나뉜다(Benson & Ardila, 1996). 의미범주 생성 이름대기 검사는 특정 의미 범주에 속하는 낱말을 일정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이 산출하는 과제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음소범주 생성이름대기 검사는 특정 음소(혹은 글자)로 시작하는 낱말을 일정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이 산출하는 과제이다(강연옥 외, 2000; Rakin et al., 1992).

생성이름대기 검사를 사용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의미범주 생성이름대기 검사는 ‘동물’이나 ‘가게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하 가게물건)’이 사용되며, 글자범주 이름대기는 영어권에서는 /f/, /a/, /s/, /c/, /f/, /l/ 등이 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어의 입소 출현 빈도에 근거한 강연옥 외(2000)의 연구를 바탕으로 음소 범주를 선정하거나, /ㄱ/, /ㅅ/, /ㅇ/, /ㅂ/, /아/ 등이 사용된다(권수진, 2006; 유하나, 2007).

생성이름대기의 측정영역은 대략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전두엽을 비롯한 뇌영역의 손상을 알아볼 수 있다. 특히 전두엽 손상환자들의 탐지와 변별에 매우 유용한 검사 도구로 인정되고 있으며(Baldo & Shimmamura, 1998; Vilkki & Holst, 1994), 또한 치매환자의 변별에 있어 유용하다고 밝혀졌다(Solomon et al., 1998). 둘째, 신경발달을 측정하기에 좋은 검사 도구이다. 구어 유창성 발달은 아동기를 거쳐 발달하는데, 이는 전두엽 기능의 발달과 관련이 있으며, 이 전두엽은 12세까지도 완전히 발달하지 않기 때문이다(Cohen, et al., 1999). 즉 생성이름대기 검사 정도에 따라 전두엽 발달의 정도를 유추할 수 있다. 셋째, 뇌손상 후 인지적인 유연성과 인지 기능을 측정하는데 효과적이다(Tombaugh et al., 1999; Koren et al., 2005). 마지막으로 언어발달의 측정이다. 아동의 언어 발달과 생성이름대기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성이름대기는 전체적인 어휘력의 발달과 어휘-의미적 지식의 발달의 지표가 된다고 주장한다(유하나, 2007). 또한 생성이름대기는 이미 저장되어 있던 수용어휘를 적절히 인출해야 성공할 수 있는 과업이므로 어휘저장고의 크기, 즉 어휘량과 어휘를 저장하는 전략, 어휘를 산출하는 전략, 언어처리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이다(Cardebat et al., 1996; Nippold, 1992).

2) 생성이름대기에 관련된 언어, 인지적 요인들

생성이름대기 과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인지적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처리과정 또한 여러 언어모델들로 설명할 수 있다. 앞서서도 밝혔듯이 이름대기란 그 과업의 특성상 이미 저장되어 있었던 수용언어를 표현 언어로 인출하는 과업이다. 이것을 다시 몇 가지 단계로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가장 먼저 검사에서 제시된 특정 범주(category)가 무엇인지 장기기억 내에서 확인해야 한다(Nippold, 1992). 장기기억 내 개념들이 응집성을 갖고 범주화될수록 특정 범주어에 해당하는 개념을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은 개개의 사물과 사건을 독특한 것으로 지각하거나 기억하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을 한 사례로 범주화하여 기억하여 그 효율성을 높인다(Ward, 1994).

둘째, 장기기억 내에서 특정 범주어의 개념이 무엇인지 확인하면, 해당 개념에 부합하는 단어를 활성화 시킨다. 즉 개념에 해당하는 어휘를 찾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처리하는 곳이 심성 어휘집(mental lexicon)이다. 우리가 특정 상황에서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 자유롭게 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심성어휘집 안에 저장된 단어의 양(어휘량)이 풍부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수많은 어휘를 무작위로 저장하지는 않는다. 저장과 인출의 효율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전략(strategy)이라고 한다. 전략에는 의미정보를 이용하거나 음소정보를 이용하며, 이렇게 의미나 음소를 이용하여 저장하는 것을 범주화(categorization)라고 한다(Frith et al., 1991; Cardebat et al., 1996). 범주화가 일어나는 방식은 위계망모형(hierarchical network model)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Troster, 1995). 위계망모형은 의미적 연결망은 3단계로 분류하였는데 가장 상위 단계는 범주(category-혹은 상위수준)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통칭(label-혹은 기본수준) 단계이고, 세 번째 단계는 범주의 일반적인 명칭과 하위범주 명칭(혹은 하위수준)이다. 범주-통칭-일반 명칭의 예를 들면 먹을 것-음료수-콜라로 의미적 연결망을 나눌 수 있다(Meuyuk, 1988, 신문자(1992)에서 재인용). 이 모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구조는 더욱 확대되고 정교한 구조를 갖게 된다고 한다(성현란, 2001).

세 번째는 인출과정이다. 화자가 어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있는 낱말 정보(심상어휘집 속의 어휘)를 적절한 언어적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억과 어휘의 저장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은 정보들이 서로 강한 연결망을 형성할수록 어휘처리가 용이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개념적 정보나 어휘들이 다른 정보들과 많은 연결망을 형성할 경우 인출 시 관련된 정보들을 보다 많이 활성화시키고 목표 어휘의 인출을 촉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Levelt, 1991; Dell, 1986).

대부분의 언어심리학자들은 이해과정의 모형처럼 어휘산출과정도 단계적이라고 본다. 목표 대상을 개념적으로 처리하는 과정, 개념적으로 처리된 정보를 의미적으로 음운적으로 처리하는 과정, 조음 및 산출의 과정 세단계로 설명한다. 이들 산출의 단계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단원이론(modular theory, Levelt, 1989)과 상호작용이론(interactive theory, Dell, 1986)으로 구분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의 대상은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아동 29명으로 하였다. 1학년부터 5학년까지 구성된 다문화 아동의 평균 연령은 9.59세(표준편차 ± 1.18)로 여아 22명, 남아 7명으로 구성하였다. 다문화가정아동과의 비교를 위하여 구성된 비교집단은 역시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아동들과 동일 학교의 동일 학년에 재학 중인 일반아동 33명으로 하였다. 일반가정 아동의 평균 연령은 9.85세(± 1.18)로 여아 27명, 남아 6명으로 구성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2>에 제사하였다.

<표 2>

대상아동의 학년, 성별 정보

(단위 : 명)

	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다문화가정아동	5	11	6	5	2	29
일반가정아동	5	11	6	5	5	33

다문화가정아동의 선정기준은 첫째, 서울 지역의 일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아동, 둘째, 구문의미이해력검사와 언어문제해결력검사 결과가 $-1SD$ 이상이며 셋째, 쓰기가 가능하며, 언어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아동으로 하였다.

또한 비교집단의 일반가정아동 선정기준은 첫째, 서울 지역의 일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둘째, 구문의미이해력검사와 언어문제해결력검사 결과가 $-1SD$ 이상이며 셋째, 쓰기가 가능하며, 언어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아동이다.

2. 연구 도구

다문화가정아동의 생성이름대기의 특성을 알아보고, 또한 일반가정아동과 비교하기 위하여 생성이름대기검사를 실시하였다. 생성이름대기검사는 의미범주 생성이름대기와 음소범주 생성이름대기, 2가지 과제로 구성되었다.

의미범주 생성이름대기검사는 ‘동물’과 ‘가게물건’을 하위 범주로 하여 검사하였는데, ‘과일’과 ‘가게물건’으로 하위 범주를 선택한 이유는 선행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어 범주에 따른 변이성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선행 연구에서 도출된 다양한 연령층의 정상집단과의 비교 또한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음소범주 생성이름대기검사는 한국어의 특성 상 영어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없으나 음소의 출현빈도에 근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연옥 외(2000)의 연구를 참조로 음소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ㄱ’과 19개의 자음 중 10번째의 출현빈도를 가진 ‘ㅅ’을 음소범주 항목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연습항목으로 의미범주 ‘과일’과 음소범주 ‘ㅇ’을 구성하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평가는 검사자와 대상자가 분리된 조용한 교실에서 1:1로 이루어졌다. 각 과제의 수행시간은 1분으로 제한하고 초시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모든 반응은 녹음하여 후에 응답지에 순서대로 기록하였다. 만약 과제 도중 10초 이상 대상자의 반응이 없을 경우, 검사자가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해진 시간(1분)이 종료되기 전에 대상자의 생성이름대기 산출이 끝날 경우, 검사자가 대상자를 격려하며 계속 진행시키도록 하였다.

과제 제시 순서는 의미범주 생성 이름대기인 ‘동물’과 ‘가게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을 먼저 실시한 후 음소범주 생성이름대기 ‘ㄱ’과 ‘ㅅ’을 실시하였다. 단 각 범주의 생성이름대기를 실시하기 전에 연습항목을 미리 실시하였다. 연습항목을 실

시하는 이유는 첫째, 아동이 검사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생성이름대기의 산출 개수는 음소출현빈도보다는 각 음소의 제시순서에 더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강연옥 외, 2000)에 따라 생성이름대기 산출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의미범주 생성이름대기를 음소범주 생성이름대기보다 먼저 실시한 이유는 의미범주 생성이름대기가 대상자들에게 더 쉽게 느껴지고, 더 많이 산출되었다는 여러 연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Martin et al., 1994; 방영임, 2004; 이경숙, 2004).

4, 자료 분석

1) 채점 방법

본 연구는 학령기 다문화가정아동의 생성이름대기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생성이름대기를 각 하위 범주별로 산출수, 군집(cluster)의 수, 전환(switch)의 수를 측정하였다.

(1) 의미범주 생성이름대기

산출수의 분석은 1분 동안 산출한 낱말 수 중 각 해당범주에 속하는 어휘를 적절히 산출한 경우만 정반응으로 인정하였고, 반복되었거나 범주와 무관한 어휘는 제외하였다. 강연옥 외(2000)의 분석방법에 따라 ‘동물’은 조류, 곤충, 어류, 파충류 등의 범주까지 모두 포함하였다. 또한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을 함께 산출한 경우(예: 개, 진돗개, 치와와)에서는 구체적인 하위개념 어휘들만 산출수에 포함(예: 진돗개, 치와와) 시키고 상위개념 어휘(예: 개)는 채점에서 제외하였다.

군집 및 전환의 분석기준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Troyer 외(1997)의 모델에 따라 전환과 군집을 산출하였다. 이는 강연옥 외(2000), 이경숙(2004)이 제시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하였다.

군집은 아래에 해당하는 어휘를 2개 이상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물의 의미 군집을 형성하는 기준은 첫째, 동일한 하위범주로 분류되는 낱말을 연이어 산출하는 경우. 둘째, 포유류 중에서 생김새가 유사한 동물을 연이어 산출하는 경우. 셋째, 동일 동물의 새끼를 지칭하는 이름이 연이어 산출된 경우로 하였다. 가계물건은 첫째, 사용하는 장소가 동일하거나 항상 함께 사용하는 물건인 경우. 둘째, 용도가 같은 사물인 경우로 구분하였다.

전환은 군집에서 또 다른 군집으로 이동하는 횟수로 산출하였다. 즉 군집 기준에 의해서 어휘 간 공통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 전환이 일어났다고 보았으며, 전환의 횟수는 한 개의 어휘도 포함하였다.

(2) 음소범주 생성이름대기

산출수의 분석은 1분 동안 산출한 어휘 개수 중 두개의 목표음소(/ㄱ/, /ㅏ/)로 시작되는 어휘 중 의미를 가지는 적절한 어휘를 산출하는 경우 정반응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강연옥 외(2000)의 분석방법에 따라 파생어(예: 보다, 보았니 등; 시어머니, 시누이, 시아버지)는 제일 첫 반응만 낱말 산출에 포함시키고 사람이름이나 도시이름, 역이름 등의 고유명사인 경우는 정반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군집의 경우 Troyer 외(1997)의 모델에 따라, 군집은 자음+모음(CV) 이상의 구조가 동일한 것으로 2개 이상 어휘 산출로 정의하였고, 1개 어휘는 제외하였다. 군집의 크기는 한 군집당 2개 이상 산출된 경우에만 어휘수를 세었다.

전환은 동일한 자음+모음(CV) 군집에서 다른 자음+모음(CV) 군집으로 이동하는 횟수로 산출하였다. 즉 군집 기주에 의해 각각의 어휘 간에 공통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 전환이 일어났다고 보았다.

2) 자료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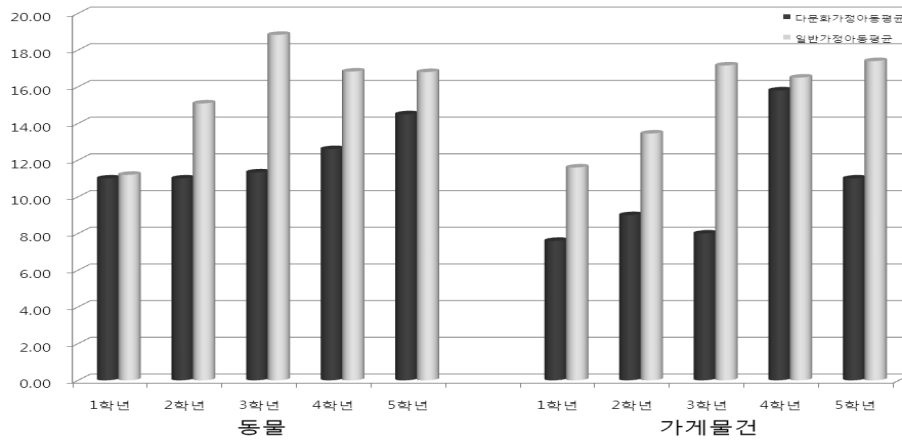
학년과 문화집단(다문화가정 아동집단과 일반가정 아동집단을 묶어 지칭하는 용어, 이하 문화집단)에 따른 산출수, 군집수, 전환수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학년(5) × 문화집단(2)의 이원피험자간 분산분석(two-way between-subject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후 결과에 따라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각 문화집단 사이에 생성이름대기 산출수, 군집수, 전환수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t 검정을 하였고, 각 문화집단 내에서 학년간의 생성이름대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 피험자간 분산분석(one-way between subject ANOVA)를 실시하고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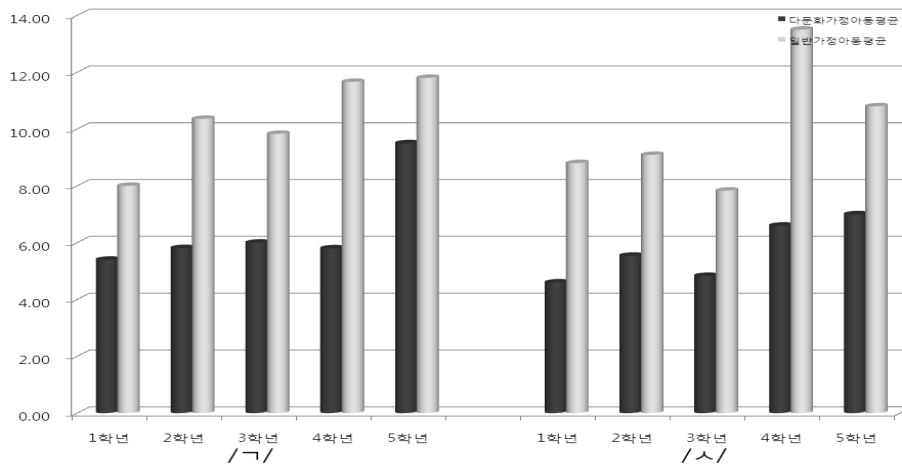
III. 연구 결과

1. 생성이름대기의 산출수

학년과 문화집단에 따른 생성이름대기 산출수에 대한 평균은 <그림 1>, <그림 2>와 같다.



〈그림 1〉 학년과 문화집단에 따른 의미범주 생생이름대기 산출수



〈그림 2〉 학년과 문화집단에 따른 음소범주 생생이름대기 산출 낱말 수

학년별로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생성이름대기 산출수를 비교한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이 의미범주와 음소범주 모두에서 일반가정 아동보다 생성이름대기 산출수가 학년에 따라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생성이름대기 산출수의 이원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SS	df	MS	F	p
피험자 간						
동물	문화집단	169.429	1	169.429	13.244	.000*
	학년	132.953	4	33.238	2.598	.001*
	문화집단 * 학년	77.1674	4	19.292	1.508	.047*
	오차	665.209	52			
피험자 간						
가게 물건	문화집단	308.373	1	308.373	33.168	.000*
	학년	280.980	4	70.245	7.555	.000*
	문화집단 * 학년	108.956	4	27.239	2.930	.029*
	오차	483.461	52			
피험자 간						
/ㄱ/	문화집단	184.956	1	184.956	33.436	.000*
	학년	61.112	4	15.278	2.762	.037*
	문화집단 * 학년	20.069	4	5.017	.907	.467
	오차	287.648	52			
피험자 간						
/ㅅ/	문화집단	232.063	1	232.063	29.810	.000*
	학년	104.007	4	26.002	3.340	.017*
	문화집단 * 학년	26.776	4	6.694	.860	.494
	오차	404.803	52			

*p<.05

동물 의미범주와 가게동물 의미범주에서 문화집단과 학년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났으므로, Scheffe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가게물건 의미범주 생성이름대기 산출수의 사후검정 결과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1학년			*	*
2학년			*	*
3학년				
4학년				

*p<.05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간에 생성이름대기 산출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의미범주와 음소범주에 대해 독립-t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의미범주와 음소범주의 생성이름대기에서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산출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년에 따라 각 하위 의미범주별로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생성이름대기 산출수를 비교한 결과 일반가정 아동은 학년에 따라 모든 의미범주와 음소범주의 생성이름대기 산출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학년 간 생성이름대기 산출수의 차이가 의미범주인 가게물건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6>.

<표 5> 문화집단 간 생성이름대기 산출수의 독립 t-검정 결과

		평균	표준편차	t	p
동물	다문화가정아동	11.58	3.86	4.301	.000*
	일반가정아동	15.75	3.76		
가게물건	다문화가정아동	9.86	4.22	5.297	.000*
	일반가정아동	15.00	13.40		
/ㄱ/	다문화가정아동	6.03	2.55	6.900	.000*
	일반가정아동	10.36	2.38		
/ㅅ/	다문화가정아동	10.47	2.94	5.697	.000*
	일반가정아동	9.87	3.05		

*p<.05

〈표 6〉 생성이름대기 산출수의 학년 간 일원 분산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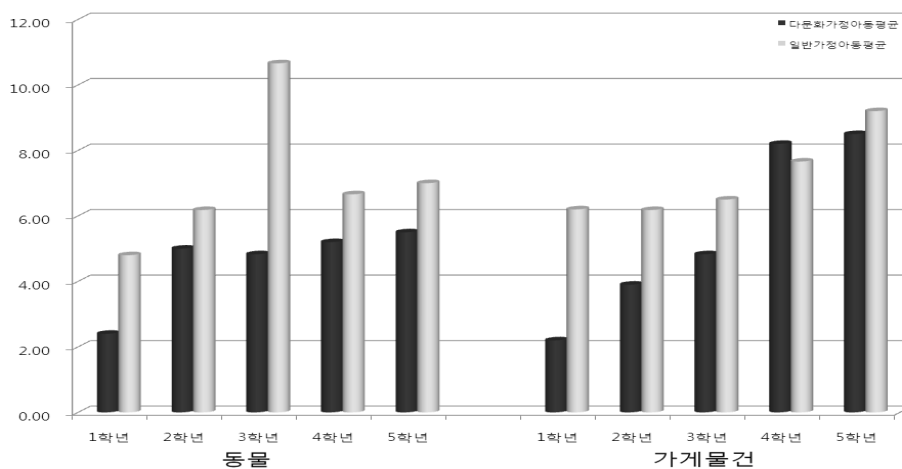
문화집단			SS	df	MS	F	p
동물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간	28.001	4	7.000	.432	.784
		집단내	389.033	24	16.210		
		합계	417.034	28			
	일반가정 아동	집단간	177.885	4	44.471	4.509	.006*
		집단내	276.176	28	9.863		
		합계	454.061	32			
가계 물건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간	233.448	4	58.362	5.266	.003*
		집단내	266.000	24	11.083		
		합계	499.448	28			
	일반가정 아동	집단간	154.539	4	38.635	4.975	.004*
		집단내	217.461	28	7.776		
		합계	372.000	32			
/ㄱ/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간	26.829	4	6.707	1.031	.412
		집단내	156.136	24	6.506		
		합계	182.966	28			
	일반가정 아동	집단간	50.124	4	12.531	2.668	.043*
		집단내	131.512	28	4.697		
		합계	181.636	32			
/ㅅ/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간	17.281	4	4.320	.459	.765
		집단내	255.961	24	9.415		
		합계	243.241	28			
	일반가정 아동	집단간	120.673	4	30.168	4.723	.005*
		집단내	178.842	28	6.387		
		합계	299.515	32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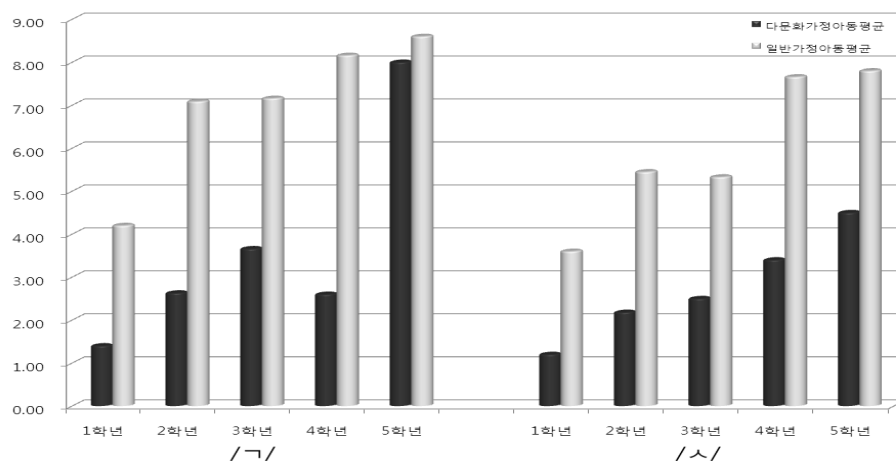
2. 생성이름대기의 군집수

학년과 문화집단에 따른 생성이름대기 군집수에 대한 평균은 <그림 3>, <그림 4>와 같다.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생성이름대기 군집수를 학년별로 비교한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이 의미범주와 음소범주 모두에서 일반가정 아동보다 학년에 따라 생성이름대기 군집수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그림 3> 학년과 문화집단에 따른 의미범주 생성이름대기 군집수



<그림 4> 학년과 문화집단에 따른 음소범주 생성이름대기 군집수

〈표 7〉 생성이름대기 군집수의 이원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SS	df	MS	F	p
동물	피험자 간					
	문화집단	77.358	1	77.358	11.414	.001*
	학년	96.332	4	24.083	3.553	.012*
	문화집단 * 학년	47.055	4	11.764	1.736	.156
	오차	352.436	52			
가게 물건	피험자 간					
	문화집단	33.156	1	33.156	5.258	.026*
	학년	140.447	4	35.112	5.567	.001*
	문화집단 * 학년	29.956	4	7.489	1.188	.327
	오차	327.912	52			
/ㄱ/	피험자 간					
	문화집단	144.477	1	144.477	37.404	.000*
	학년	114.572	4	28.643	7.415	.000*
	문화집단 * 학년	28.254	4	7.615	1.829	.137
	오차	200.855	52			
/ㅅ/	피험자 간					
	문화집단	130.351	1	130.351	34.056	.000*
	학년	77.414	4	19.354	5.056	.002*
	문화집단 * 학년	5.142	4	1.285	.336	.853
	오차	199.030	52	3.828		

*p<.05

문화집단 간 생성이름대기 군집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모든 의미범주와 음소범주 생성이름대기 군집수에서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표 8>. 즉 다문화가정 아동의 생성이름대기 군집수가 일반가정아동의 생성이름대기 군집수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범주별로 학년에 따른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생성이름대기 군집수를 비교한 결과 일반가정 아동들은 가게물건 의미범주 생성이름대기의 군집수를 제외한 동물 의미범주와 모든 음소범주에서 산출수가 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가게물건 의미범주와 /ㄱ/ 음소범주에서 학년에 따라 군집수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9>.

〈표 8〉 문화집단 간 생생이름대기 군집수의 독립 t-검정 결과

		평균	표준편차	t	p
동물	다문화가정아동	4.58	2.63	3.302	.002*
	일반가정아동	7.00	3.06		
가계물건	다문화가정아동	4.86	3.46	2.885	.005*
	일반가정아동	6.96	2.22		
/ㄱ/	다문화가정아동	7.07	3.13	6.867	.000*
	일반가정아동	7.09	2.50		
/ㅅ/	다문화가정아동	2.44	1.93	6.207	.000*
	일반가정아동	5.90	2.38		

*p<.05

〈표 9〉 생생이름대기 군집수의 학년 간 일원 분산분석 결과

문화집단			SS	df	MS	F	p
동물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간	29.701	4	7.425	1.078	.389
		집단내	165.333	24	6.889		
		합계	195.034	28			
	일반가정 아동	집단간	112.897	4	28.224	4.224	.008*
		집단내	187.103	28	6.682		
		합계	300.000	32			
가계 물건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간	127.606	4	31.901	30684	.018*
		집단내	207.842	24	8.660		
		합계	335.448	28			
	일반가정 아동	집단간	38.900	4	9.725	2.268	.087
		집단내	120.070	28	4.288		
		합계	158.970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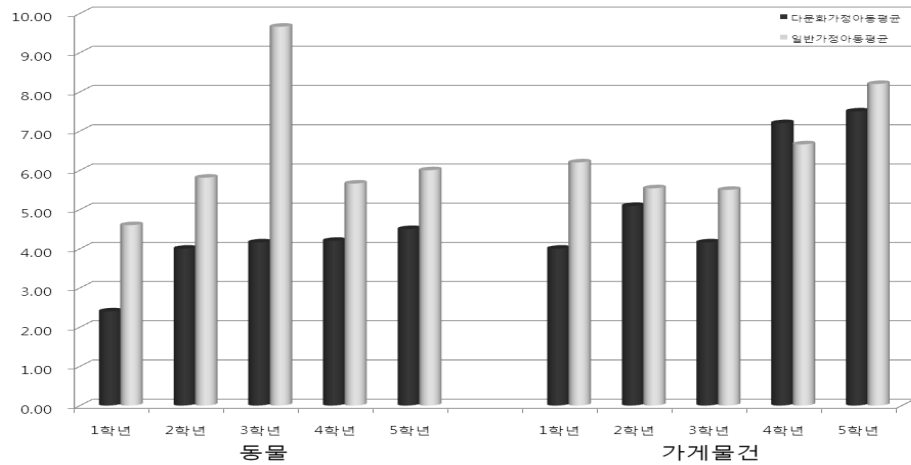
/ㄱ/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간	67.721	4	16.930	6.741	.001*
		집단내	60.279	24	2.512		
		합계	128.000	28			
	일반가정 아동	집단간	60.152	4	15.038	2.995	.035*
		집단내	140.576	28	5.021		
		합계	200.727	32			
/ㅅ/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간	21.56	4	5.384	1.545	.221
		집단내	83.636	24	3.485		
		합계	105.172	28			
	일반가정 아동	집단간	67.333	4	16.883	4.085	.010*
		집단내	115.394	28	4.121		
		합계	182.727	32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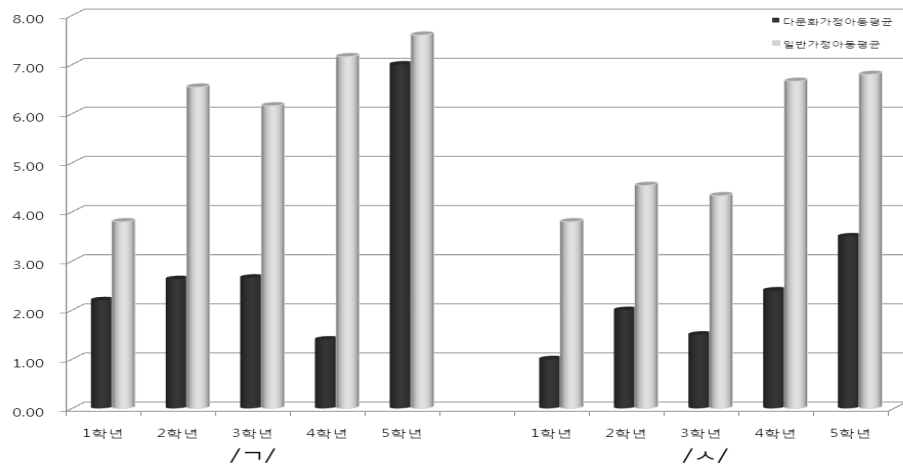
3. 생성이름대기의 전환수

학년과 문화집단에 따른 의미범주 생성이름대기 전환수에 대한 평균은 <그림 5>, <그림 6>과 같다.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을 학년별로 비교한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이 가계물건 의미범주를 제외한 동물 의미범주와 모든 음식범주에서 학년에 따라 일반가정 아동보다 생성이름대기 전환수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ㄱ/ 음식범주에서 문화집단과 학년에 대해 상호작용이 나타났으므로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표 11>.



〈그림 5〉 학년과 문화집단에 따른 의미범주 생성이름대기 전환수



〈그림 6〉 학년과 문화집단에 따른 음소범주 생성이름대기 전환수

〈표 10〉 생성이름대기 전환수의 이원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SS	df	MS	F	p
동물	피험자 간					
	문화집단	78.651	1	78.651	13.243	.001*
	학년	66.430	4	16.608	2.796	.035*
	문화집단 * 학년	34.118	4	8.530	1.436	.235
	오차	308.836	52			
가계 물건	피험자 간					
	문화집단	8.709	1	8.709	1.870	.177
	학년	58.814	4	14.704	3.157	.021*
	문화집단 * 학년	11.250	4	2.813	.604	.662
	오차	242.203	52			
/ㄱ/	피험자 간					
	문화집단	119.291	1	119.291	39.193	.000*
	학년	68.075	4	17.019	5.591	.001*
	문화집단 * 학년	35.958	4	8.989	2.953	.028*
	오차	158.273	52			
/ㅅ/	피험자 간					
	문화집단	125.097	1	125.097	35.316	.000*
	학년	44.438	4	11.110	3.136	.022*
	문화집단 * 학년	5.814	4	1.454	.410	.800
	오차	184.194	52			

*p<.05

<표 11> /ㄱ/ 음소범주 생성이름대기 전환수의 사후검정 결과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p<.05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간에 생성이름대기 전환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집단의 평균을 독립-t 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모든 의미범주와 음소범주에서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표 12>,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생성이름대기 전환수가 모든 범주에서 일반가정 아동의 전환수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의미, 음소범주별로 학년에 따라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생성이름대기 전환수를 비교한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집단은 /ㄱ/ 음소범주를 제외한 모든 하위범주에서 학년 간 전환수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일반가정 아동집단은 가계물건 의미범주 이름대기에서만 전환수의 학년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표 12> 문화집단 간 생성이름대기 전환수의 독립 t-검정 결과

		평균	표준편차	t	p
동물	다문화가정아동	3.82	2.42	3.768	.000*
	일반가정아동	6.33	2.76		
가계물건	다문화가정아동	5.26	2.54	1.715	.091*
	일반가정아동	6.24	2.04		
/ㄱ/	다문화가정아동	2.65	1.89	7.081	.000*
	일반가정아동	6.33	2.16		
/ㅅ/	다문화가정아동	1.89	1.83	6.332	.000*
	일반가정아동	5.12	2.13		

*p<.05

〈표 13〉 생성이름대기 전환수의 학년간 일원 분산분석 결과

문화집단			SS	df	MS	F	p
동물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간	12.805	4	3.201	.508	.731
		집단내	151.333	24	6.306		
		합계	16.138	28			
	일반가정 아동	집단간	87.830	4	21.958	3.903	.012*
		집단내	157.503	28	5.625		
		합계	245.333	32			
가게 물건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간	44.268	4	11.067	1.938	.137
		집단내	137.042	24	5.710		
		합계	181.310	28			
	일반가정 아동	집단간	28.900	4	7.225	1.924	.134
		집단내	105.161	28	3.756		
		합계	134.061	32			
/ㄱ/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간	49.673	4	11.668	5.198	.004*
		집단내	53.879	24	2.245		
		합계	100.552	28			
	일반가정 아동	집단간	44.939	4	11.235	3.013	.035*
		집단내	104.394	28	3.728		
		합계	149.333	32			
/ㅅ/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간	11.490	4	2.872	.829	.520
		집단내	83.220	24	3.467		
		합계	94.690	28			
	일반가정 아동	집단간	44.521	4	11.130	3.086	.032*
		집단내	100.994	28	3.607		
		합계	145.515	32			

*p<.05

IV. 논의 및 제언

첫째,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생성이름대기 산출수를 의미범주와 음소범주 생성이름대기로 나누고, 하위범주, 동물, 가게물건, /ㄱ/과 /ㅈ/를 통하여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생성이름대기 산출수를 일반가정 아동의 생성이름대기 산출수와 양적으로 비교하였다. 또한 각 집단 별로 학년에 따라 산출수의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의미범주 생성이름대기 산출수의 경우, 동물과 가게물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다문화가정 아동의 산출수가 일반가정 아동의 산출수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물과 가게물건 의미범주 모두에서 공통된 특징이었다. 또한 학년에 따른 각 문화집단의 산출수에 유의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일반가정 아동은 모든 의미범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 일반가정 아동은 가게물건 의미범주에서만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음소범주 생성이름대기 산출수의 경우, /ㄱ/ 음소범주와 /ㅈ/ 음소범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다문화가정 아동의 산출수가 일반가정 아동의 산출수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하위 음소범주 모두에서 공통된 특징이었으며, 학년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내었다.

학년에 따른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생성이름대기 산출수의 변화는 정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들과 일치하지 않는 반면 학령기 일반가정 아동의 생성이름대기 산출수의 증가는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6, 8, 10세 집단, 3학년 집단과 6학년 집단, 13세와 16세 집단, 전 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역시 학년이 지날수록 생성이름대기 산출수가 증가하며 연령이 생성이름대기의 한 요인이라고 하였다(방영임, 2004; 이경숙, 2004; 유하나, 2007; 이경희, 2006; 김슬기, 2006).

또한 언어발달장애, 학습장애, 읽기장애 또는 실어증 아동이나 성인, 특히 단수 언어장애 아동들은 이름대기의 어려움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일부가 수용 언어 및 표현 언어에서 지체를 보이며 연구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능력이 일반가정 아동의 언어능력보다 떨어진다는 연구가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생성이름대기 산출수가 낮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German, 1984; 오소정 외, 2009; 황상십, 정옥란, 2008; 김정미, 2008).

음소범주 생성이름대기의 산출수가 의미범주 생성이름대기의 산출수보다 적으며, 그 증가폭도 작았다는 사실은 이경숙 외의 연구나 다른 여러 연구와도 일치한다(방영임, 2004; 이경숙 외, 2004; 이경희, 2006; 유하나, 2007). 음소범주 생성이름대기의 산출수가 의미범주 생성이름대기보다 작은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

석이 있다. 첫 번째로 생성이름대기 검사의 의미단서가 음소단서보다 대부분의 피험자들에게 더욱 쉽게 느껴진다는 것이다(Martin et al. 1994; 강연옥 외, 2000). 두 번째는 특정 음소로 시작하는 어휘들의 분포범위가 의미범주 어휘들의 분포범위보다 더 넓으며, 아동마다 그 저장내용이 다르므로, 낱말을 탐색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이경숙 외, 2004). 마지막으로 심상어휘집의 구성이 의미적, 기능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이다(이수화, 2000). 만약 어휘집이 낱말 시작 음소별로 구성되어 있다면 의미범주 생성이름대기와 음소범주 생성이름대기 간의 수행차이는 반대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이경숙, 2004).

생성이름대기의 산출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대략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어휘량이 클수록 생성이름대기의 산출량이 커진다. Anglin(1993)에 따르면 정상아동의 어휘발달은 6세에 이미 1만 단어를 이해할 수 있고, 10세경에 4만 단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에 9,000개의 어휘가 증가하고, 3학년에서 5학년 사이에 20,000개의 단어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어휘력의 증가는 상위언어지식의 발달로 인한 것이며 사춘기가 되며 추상적인 어휘의 획득이 두드러지면서 계속 그 수가 증가한다고 하였다(McGhee & Bidlack, 1991). 유하나(2007)와 김슬기(2006)는 학령기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어휘력이 증가하는 이유는 학령기 언어발달의 중요한 요소인 읽기와 쓰기를 통한 어휘 능력 발달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읽기와 쓰기는 교육을 통해 습득되는 것으로서, 학년에 따른 교육기간, 기회의 증가가 어휘력 발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산출수가 학년에 따라 증가하지 않는 원인으로 한국어에 노출되는 시간과 양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작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특성상 한쪽 부모가 외국인인데,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경우 모국어보다 서툰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주로 어머니의 서툰 한국어 자극만 받게 되므로 언어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자극의 질적, 양적 부족으로 인해 언어발달지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김화수, 2007; 김화수, 황상심, 2008; 오소정 외, 2009)

생성이름대기의 산출량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요인으로 범주화 능력을 들 수 있다. 위계 망 모형에 따르면 아동들은 어휘를 발달시켜 나갈 때 상위나 하위수준 범주에 속하는 어휘보다는 기본수준 범주의 어휘를 더 먼저 이해하고 산출하게 되는데, 그것은 기본수준 범주의 어휘들이 상위 및 하위 수준 어휘에 비해 사물 간 대조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이정모, 2002). 결국, 보다 많은 어휘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범주 개념의 발달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이경숙, 2004).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생성이름대기 산출수가 일반가정 아동의 생성이름대기 산출수보다 더 적으며, 학년이 증가해도 그 수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범주화 전략의 미숙하거나 위계 망 모형의 연결이 긴밀하고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둘째,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생성이름대기 군집수를 의미범주와 음소범주 생성이름대기로 나누고 하위범주, 동물, 가계물건, /ㄱ/과 /ㅅ/를 통하여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생성이름대기 군집수를 일반가정 아동의 생성이름대기 군집수와 양적으로 비교하였다. 또한 각 집단 별로 학년에 따라 군집수의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의미범주 생성이름대기 군집수의 경우, 동물과 가계물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다문화가정 아동의 군집수가 일반가정 아동의 군집수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물건 의미범주의 4학년 집단을 제외하고 동물과 가계물건 의미범주 모두에서 일관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일반가정 아동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군집수의 증가가 점진적인 반면, 다문화가정 아동의 군집수는 학년에 따라 증가하지 않거나, 증가하더라도 그 경향이 뚜렷하지 않았다.

음소범주 생성이름대기 군집수에서도 역시, /ㄱ/ 음소범주와 /ㅅ/ 음소범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다문화가정 아동의 군집수가 일반가정 아동의 군집수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하위 음소범주 모두에서 공통된 특징이었으며, 학년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생성이름대기의 군집수와 산출수 사이에 관련성이 있었다. 즉 총 산출수가 증가함에 따라 의미적으로, 음소적으로 동일한 하위범주별로 단어를 묶어 산출하는 군집의 개수도 함께 증가하였다. 그러나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연령 간에 따라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인 반면, 다문화가정 아동은 의미범주의 가계물건과 /ㄱ/음소범위에 한해서만 학년별로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방영임(2004), 이경숙 외(2004) 유하나(2007)의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아동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조직화 전략(organization strategy)을 어휘 산출 시에도 사용하며, 그 능숙도 역시 올라가 학년이 증가할수록 산출 어휘들 간의 의미적 관련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조직화 전략이란 제시된 자료를 기억하기 쉬운 형태로 구성하는 방법으로 크게 일상적인 맥락에서 서로 연관성 있는 어휘들을 묶어 저장하는 군집화와 하위범주 별로 어휘를 묶어 저장하는 범주화로 구성된다(성현란, 2001).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집단이 일반가정 아동집단에 비해 군집개수가 적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산출수가 일반가정 아동의 산출수보다 작았으므로 당연히 동일한 하위범주에 속하는 어휘를 묶어 산출하는 군집수 또한 적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반가정 아동과 다문화가정 모두에서 산출수와 군집수 사이에 관련성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방영임(2004)과 이경숙 외(2004)의 주장과 일치한다.

셋째,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생성이름대기 전환수를 의미범주와 음소범주 생성이름대기로 나누고 하위범주, 동물, 가계물건, /ㄱ/과 /ㅈ/를 통하여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생성이름대기 전환수를 일반가정 아동의 생성이름대기 전환수와 양적으로 비교하였다. 또한 각 집단 별로 학년에 따라 전환수의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의미범주 생성이름대기 전환수의 경우, 동물과 가계물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다문화가정 아동의 전환수가 일반가정 아동의 전환수보다 학년에 따라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물건 의미범주의 4학년 집단을 제외하고 동물과 가계물건 의미범주 모두에서 일관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일반가정 아동은 학년에 따라 전환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다문화가정 아동의 전환수는 모든 의미범주에서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음소범주 생성이름대기 전환수에서도 역시, /ㄱ/ 음소범주와 /ㅈ/ 음소범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다문화가정 아동의 전환수가 일반가정 아동의 전환수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가정 아동은 학년에 따라 전환수의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나 다문화가정아동은 /ㄱ/ 음소범주에서만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전환은 정보 처리 속도의 발달과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다. 생성이름대기 과제에서 어휘를 산출하기 위해 어휘 저장고인 심성어휘집에서 적절한 어휘를 탐색한다. Troyer(1997)는 탐색된 하나의 하위범주가 바닥나면 재빨리 또 다른 하위범주로 이동하여 어휘를 탐색, 산출하는 것이 전환 능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방영임(2004)에 따르면 생성이름대기는 장기기억 내에 있는 정보를 인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많은 연구에서 단기기억에 있는 정보를 탐색하거나, 장기기억 있는 정보를 인출하거나, 마음속에 심상을 떠올리고 회전시키는 등의 기초 정신 과정을 실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일반가정 아동들보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인출 전략이 좋지 않으며 특히 정보 처리의 속도에서 차이가 난다고 말할 수 있다.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전환수와 산출수의 관련에 대한 또 다른 설명으로 심성 어휘집의 크기가 작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경숙 외(2004)는 3세 아동이 범주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거나 그 수가 적은 이유는 어휘집의 크기가 작거나 전환의 어려움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생성이름대기 산출량이 작으며 수용어휘 및 표현어휘가 적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살펴볼 때(김경미, 2008; 이수정 외, 2008),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생성이름대기 전환수가 작은 이유는 어휘집의 크기가 작은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 및 일반가정 아동의 학년별 대상자 수가 충분하지 못했고 어머니의 국적도 일본으로 통일되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자료 축적과 분석을 통해 학년별, 어머니 국적별, 어머니 언어수준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한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생생이름대기의 특성상 자료수집 방법에서 1분이라는 시간의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면서 시간의 제한이 어휘처리의 속도를 보는 것에 있어서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전략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기에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나타났다. 앞으로 시간과 범주의 다양성을 고려한 생생이름대기 과제를 실시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강연옥, 진주희, 나덕렬, 이정희, 박재설 (2000). 통제 단어 연상 검사의 노인 기준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19(2), 385-392.
- 건강가정시민연대 (2004). **건강한 가정 위한 용어**. 기독교보. <http://www.pckworld.com.news/>
- 권수진 (2006). **다문화가정아동과 일반가정아동의 생생이름대기 특성 비교**. 석사학위 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김경미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해어휘능력 및 관련변인**.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슬기 (2006). **학령기 아동의 ud사 및 동사 생생이름대기 특성**.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화수 (2007).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제3회 한국언어치료학회 분과연수회**, 1-20, 한국언어치료학회.
- 김화수 (2009). 한국 다문화사회에서 언어치료사의 역할모형에 대한 제안. **언어치료연구**, 간행중.
- 김화수, 황상삼 (2008). 다문화가정의 언어환경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어머니들의 한국어 능력 및 특성을 중심으로. **2008년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22-124.
- 방영임 (2000). **13세와 16세간의 생생이름대기 비교**.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보건복지부 (2008). **국제결혼가정 자녀 실태조사 및 성장지원 방안연구**.
- 보건복지가족부 (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http://www.mw.go.kr/>
- 성현란 (2001). **인지발달**. 서울: 학지사.
- 신문자 (1992). 아동의 조기 언어 중재 방법. **특수교육요구 아동연구**, 2, 19-34.
- 신영주, 안성우 (2008).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음운인식 발달. **언어치료연구**, 17(3), 37-53.
- 안원석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표현 실태분석**.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오소정, 김영태, 김영란 (2009). 서울 및 경기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특성과 관련변인에 대한 기초 연구. **특수교육**, 8(1), 137-161.
- 유하나 (2007). **학령기 아동의 생생이름대기 발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경숙 (2004). 3, 4, 5 및 6세 아동의 생성이름대기 능력의 발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경희 (2006). 6, 8, 10세 정상아동의 생성이름대기 특성 비교.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이수정, 신지철, 김향희, 김화수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어휘능력 연구. *언어치료연구*, 17(3), 95-115.
- 이수화 (2000). 단어 유창성 검사 수행에 동반된 뇌 활성화 양상: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연구. *대한 신경과학회지*, 18, 138-143.
- 행정안전부 (2008). 200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2008년 7월 30일 보도 자료. <http://www.mopas.go.kr/>
- 행정안전부 (2009).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 2009년 8월 6일 보도 자료. <http://www.mopas.go.kr/>
- 황상삼, 정옥란 (2008).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아동들의 언어특성관련 상관 연구. *언어치료연구*, 17(1), 81-102.
- 황혜신, 황혜정 (2000). 이중언어(한국-영어)를 하는 아동의 언어능력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4), 69-79.
- Anglin, J. M. (1993). *Vocabulary development: A morphological analysi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dore, L. M., and Peña, E. D. (2008). Assessment of bilingual children for identification of language impairment: Current findings and implications for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11(1), 1-29.
- Bishop, D. V. M., & Adams, C. (1992). A prospectiv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phonological disorders and reading retardation. *Journal of Psychology and Psychiatry*, 31, 1027-1050.
- Baldo, J. V., & Shimamura, A. P. (1998). Letter and category fluency in patients with frontal lobe lesions, *Neuropsychology*, 12, 259-267.
- Benson, D. F., & Ardila, A. (1996). *Aphasia: A clinical perspective*.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Catts, H. W., & Kamhi, A. (2005). *Language reading disabilities (2nd ed)*. Boston, MA: Pearson Education, Inc.
- Cardebat, D., Demonet, J. F., Biallard G, Faure, S., Puel, M., & Cleis, P. (1996). Brain functional profiles in formal and semantic fluency tasks: A SPECT study in normals. *Brain and Language*. 52, 305-313.
- Cochen, M. J., Morgan, A. M., Vaughn, M. Cynthia, A., & Hall, R. J. (1999). Verbal fluency in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nd two subtypes of dyslexia. *Archives Clinical Neuropsychology*, 14, 433-443.
- Dell, G. S. (1986). A spreading activation theory of retrieval in sentence production. *Psychological Review*, 93, 283-321.
- Frith, C. D., Friston, K. J., Liddle, P. F., & Frackowiak, R. S. J. (1991). A PET study of word finding. *Neuropsychologia*, 29, 1137-1148.
- German, D. (1984). Diagnosis of word-finding disorders in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17, 353-358.
- Gathercole, S. E. (2002). Memory development during the childhood year. In A. D. Baddeley, M. D. Kopelman, & B. A. Wilson (Eds.), *Handbook of memory disorders(2nd*

- ed.) (pp. 475–500).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 Koren, R., Kofman, O., & Berger, A. (2005). Analysis of word clustering in verbal fluency of school-aged children. *Archives Clinical Neuropsychology*, 10, 1087–1104.
- Kuder, S. J. (2008). *Teaching students with language and communication disabilities* (3rd ed.) Allen and Bacon: Boston.
- Leonard, L. (1998).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Cambridge, MA: The MIT press.
- Livelt, W. (1991). *Lexical access in speech production*, Cambridge MAL Blackwell.
- Martin, A., Wiggs, C. L., LaLonde, F., & Mack, C. (1994). Word retrieval to letter and semantic cues: A double dissociation in normal subjects using interference tasks. *Neuropsychologia*, 32(12), 1487–1494.
- Nippold, M. A. (1992). The nature of normal and disordered word finding in children and adolescents. *Topics in Language Disorders* 13, 1–14.
- Paul, R. (2008). *Language disorders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St. Louis: Mosby.
- Rakin, S. A., Sliwinski, K. N., & Borod, J. C. (1992). Clustering strategies on task of verbal fluency in Parkinson's disease. *Neuropsychologia*, 3, 95–99.
- Solomon, P. R., Hirschhoff, A., Kelly, B., Relin, M., Brush, M., Deveaux, R. D., & Pendlebury, W. W. (1998). A seven minute neurocognitive screening battery highly sensitive to Alzheimer's disease. *Archives of Neurology*, 55, 349–355.
- Tallal, P. (1988). Developmental language disorders. In J. F. Javangh & T. J. Truss, Jr. (Eds.), *Learning disabiliti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conference*. Timonium, MD: York Press.
- Tombaugh, T. N., Kozak, J., & Rees, L. (1999). Normative data stratified by age and education for two measures of verbal fluency: FA and animal naming. *Archives Clinical Neuropsychology*, 14, 167–177.
- Troster, A. I., Warmflash, V., Osorio, I., Paolo, A. M., Alexander, L. J., Barr, W. B. (1995). The roles of semantic networks and search efficiency in verbal fluency performance in intractable temporal lobe epilepsy. *Epilepsy Research*, 21, 19–26.
- Troyer, A. K., Moscovich, M., & Winocur (1997). Clustering and switching as two components of verbal fluency: Evidence from younger and older healthy adult. *Neuropsychology*, 11, 138–146.
- Vilkki, J., & Holst, P. (1994). Speed and flexibility on word fluency tasks after focal brain lesions. *Neuropsychologia*, 32, 1257–1262.
- Word, T. B. (1994). Structured imagination: The role of category structure in exemplar generation. *Cognitive Psychology*, 27, 1–40.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in Generative Naming for
School-Age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and
School-Aged Children of Ordinary Family

Kim, Wha-Soo

Department of Speech-Language Pathology, Daegu University

Kim, Ji-Chae

Department of Speech-Language Pathology, Daegu University

Kwon, Su-Jin

Ilala Child Development Study Cente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in generative naming and to compare the school-age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and Ordinary family, and across the academic years. The participated children were 29(girl:22, boy:7) children multi-cultural family and 33(girl:27, boy:6) children of ordinary family, with the semantic of animal and goods in store, and the phonetic of /ㄱ/ and /ㄴ/. On the generative naming of semantic and phonetic, we take a look at the number of words, number of clusters, and number of switche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From generative naming of semantic, and phonetic, the number of words, the number of clusters, and number of switches were noticeably less i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than children of ordinary family

2. From generative naming of semantic, and phonetic, the number of words, the number of clusters, and number of switche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5 academic age groups in children of ordinary family, but multi-cultural family.

Key Words

: school-aged children with language disorders, learning disability,

논문 접수: 2009. 11. 5 심사 시작: 2009. 11. 13 게재 확정: 2009. 12. 18

학년에 따른 학령기 다문화가정아동과 일반가정아동의 생성이름대기 특성 비교 **361**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generative naming

논문 접수: 2009. 11. 5 심사 시작: 2009. 11. 13 게재 확정: 2009. 12. 18